

장기불황에 택시기사 감소... 사라지는 기사식당

광주 법인택시 5년새 734대 줄어
고물가에 택시 이용객 감소 원인
식재료·인건비 부담 '영업난 가중'
"직원 줄여도 버티기 힘들어" 토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직원을 8명이
나 뒀는데 지금은 아내랑 둘이 식당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비·인건비 부담
으로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기 힘들데다
갈수록 택시 기사도 줄어들어 기사식당이
줄폐업할 수밖에 없죠."

7일 찾은 광주 서구의 한 기사식당. 이
곳에서 19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63)씨는 '가게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는 질문에 영업 부진 탓에 기사식당이 줄
어지고 있는 게 실감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6000원 정도에 한 끼를 제공하
다보니 이윤이 거의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이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어 택
시업계 일을 잘 알다 보니 하루 종일 힘들
게 일한 기사 분들에게 집밥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며 "식자재
비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져서 기사식
당처럼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곳은 더 살아남기 힘들 것"
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불경기 탓에 택시
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택시 기사도 점
점 감소하고 있는데다 고물가 속 식비 부
담이 커서인지 집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는
기사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 인건비 부담



장기불황 등으로 택시 기사들이 감소하면서 폐업하는 기사식당이 늘고 있다. 7일 광주 북구의 폐업한 기사식당. 나건호 기자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
는 가운데 택시 기사들에게 휴식 공간과
저렴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기사식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사식당은 '뷔페식'
이나 '백반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가 많아 식자재비 및 인건비 부담이 더 크
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
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 업체는 17만
6258개로, 폐업률은 21.52%에 달했다. 코
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

과 비교해 약 82.6% 증가한 수치다. 폐업
률은 △2019년 13.87% △2020년 13.41%
△2021년 14.73% △2022년 16.95% 등으
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광주지역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은 21.6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기사식당처
럼 식자재비 부담이 높고 준비하는 데 노동
력이 많이 들어가는 외식업체들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사식당의 경우 주로 택시 기사들
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기사 수 감소
에도 큰 영향을 받는데, 법인·개인택시 등

록 대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영업난이 더
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법
인·개인택시 합계 등록 대수는 7255대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던 해인 2019년
7994대와 비교해 9.24% 감소했다.

택시 합계 등록 대수는 △2020년 7686
대 △2021년 7510대 △2022년 7414대 △
2023년 7255대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개
인택시보다 수입이 적은 법인택시의 경우
감소세가 더 뚜렷하다. 광주지역 법인택시
는 △2019년 3212대 △2020년 2909대 △

2021년 2725대 △2022년 2635대 △
2023년 2478대로, 최근 5년 동안 734대
나 줄었다.

동구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50대 김
모씨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영
업에, 꽤 많은 직원을 뒀는데 지금은 아내
와 둘이 오후 4시까지만 영업하고 있다"며
"운수업계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고 택시
대수에 비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급여가 적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특히 더
많이 일을 그만두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
었다. 이어 "가격이 오르거나 반찬 가짓수
를 줄이면 단골손님도 떠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식자재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직접 도매로
재료를 구매하고 식자재 행사 등이 있으면
참여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으
려면 물가가 먼저 안정돼야 한다"고 덧붙
였다.

개인택시 기사 60대 최모씨는 "코로나
이후로 기사식당이 많이 사라진 게 느껴진
다. 예전에는 기사식당에 가면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또 식사를 하려면 기사식
당이 몰려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니 전
보다 기사식당을 덜 찾게 된다"며 "매출 육
심이 크게 없는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점심을 집에서 먹고 휴식하다가 나오는 경
우가 많다. 빨리 식사를 하고 부지런히 영
업해 수익금을 올려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
에게는 기사식당 감소가 더 크게 와닿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비엔날레 D-30... "모두의 울림으로 세계에 감동을"



제15회 광주비엔
날레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
터 12월 1일까지 86일 간 비엔날레전시

관, 양림동 일대에서 열린다.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본
전시와 국외 우수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
는 파빌리온 전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선
보인다.

광주 전역이 소리(음악과 음향)와 시각
요소를 결합한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하
고 즐기는 문화예술 현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공
장소, 공원, 대안 예술공간, 상점 등 다양

9월7일부터 86일간 비엔날레전시관 등서
30개국 72명 작가 참여... 역대 최대 규모

한 장소에서 소리와 시각 요소를 혼합한
다채로운 예술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비엔날레 개막 한 달을 앞두고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과 60여명의 작가들이
입국해 신작 제작 설치 작업에 참여하며

이달 내 작품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9월 5~6일에는 전시 프리뷰를 진행, 기
자단과 작가 등 전시 관계자들에게 작품
을 먼저 공개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는 세계적 명성의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
독과 함께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한
다. ▶관련기사 15면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켄셀링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성 전문 변호사	사회

▶만찬 후 강연 (18시 식사, 19시 강연)